■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59-488.
http://doi.org/10.17948/kcs.2023..99.459

‘아로운 삼부작’ 속 ‘인간 추구’와 ‘외로움’의 의미*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뚜르게녜프의 『루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진규(金振規)**

목 차

1. 들어가며
2. 모랄을 통한 ‘인간의 조건’ 탐구와 전쟁의 탈역사화
3. 구심력이 강한 ‘구름(雲)’과 고향을 만들기 위한 ‘외로움(Alone)’
4. 나오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운사의 ‘아로운 삼부작’, 『현해탄은 알고 있다』·『현해탄은 말이 없다』(1961), 『승자와 패자』(1963-64)를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뚜르게네프의 『루진』 등과 비교하여, ‘아로운’의 ‘인간 추구’와 ‘외로움’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과 ‘아로운 삼부작’은 모두 전쟁을 추상화하고 있고, 두 작품에서 강조되는 휴머니즘은 군대 안에서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 등 체제 안에서의 성실한 태도에 한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구조적 사유와 비판을 결여하고 있다. 가지와 아로운의 휴머니즘은 태평양전쟁을 전쟁 일반으로 추상화시키고, 체제 안에서의 성실을 집요하게 강조한다. 아로운(阿魯雲)의 이름 중 두 글자(阿, 魯)가 루쉰과 관련이 있으나, 실제 작품의 주제 전달이나 아로운의 인물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뚜르게네프의 『루진』이다. 루진과 아로운은 기반이 없이 떠돌며, 행동보다는 이상과 관념을 추구하는 ‘구름(雲)’과 같은 인물들이다. 하지만 루진은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방랑을 한 반면, 아로운에게는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군부대를 떠나지도 못한다. 아로운은 군부대 안에서 외로워야 했고, 이때 그것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6695).

** 가천대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텍스트에서 '외로움'은 민족과 국가 관념을 떠나 전쟁에 비판적인 '진정한 인간' 사이의 연대 기반이 된다. 둘째, '외로움'은 아로운의 '모랄을 통한 저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가 미래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로운의 '외로움'은 구체적인 이념과 행동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1960년대 당시 정권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승인한다. '아로운 삼부작'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지배 문제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주제어: 앙드레 말로, 고미카와 준페이, 루쉰, 잉여인간, 외로움, 성실, 휴머니즘, 한일국교정상화.

1. 들어가며

한운사는 〈현해탄은 알고 있다〉(KBS 라디오 연속극, 1960-1961)을 쓰고, 이후 소설 '아로운 삼부작'(『현해탄은 알고 있다』·『현해탄은 말이 없다』(1961), 『승자와 패자』(1963-1964)'를 발표한다.[1] 김기영 감독의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로도 각색·제작되었다.[2] 본고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로운 삼부작(1961-1964)'의 당대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960년대 전반기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의 양가적인 태도와 한일관계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4.19 직후 배일감정의 약화와 5.16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화상품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나, 정작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남한 정권은 한일협정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고려해 일본문화의 유입 등을 규제하였다. 함충범은 라디오극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0.8.-1961.1., KBS), 소설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 발간, 『한국일보』 지면을 통한 신문소설 연재, 김기영 감독의 동명 영화(1961) 등 '아로운 서사'가 당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것의 배경에는 4.19 이후 '대중문화 자유화의 흐름 속 배일주의의 완화와 일본풍 유행'이 있었으며, 해당 서사가 '반일과 독립의 당위성에서 벗어나

1) 『승자와 패자』의 경우 『사상계』에서 1963.5.-1964.3.에 연재된 후, 1985년에 정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다.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국가적 서사'의 구성과 균열」,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180면.

2)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7, 295면.

자연스럽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었다고 지적했다.[3]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이후 ‘현해탄’ 서사의 영화화와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사랑을 다룬 영화 제작, 일본 배우의 한국 영화 출연 및 일본 현지에서의 영화 촬영 등 영화계의 일본 소재화 경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4] 하지만 이화진이 밝혔듯이, 조선인 독립운동가와 초선 총독의 딸 사이의 사랑을 그린 영화 〈총독의 딸〉이 끝내 상영되지 못한 것에서 그러한 일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당대 정치·문화적 지형도와 그것의 변화 속에서 다른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가 열어놓은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연애 서사의 유행 속에서 기획된 〈총독의 딸〉은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자의 사랑을 그렸다는 점에서 ‘국내의 한일협정에 대한 민족적 반감에 역행했고, 따라서 당시 정부의 한일친선 기조를 옹호’하는 내용에도 한일협정 이후에 해당 영화는 공개되지 못한 것이다.[5] ‘4.19 이후 기획되어 1961년 5.16 직후에 촬영되었기에 국가권력과 사회 여론의 규제와 비판을 피할 수 있었던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6]와 달리 ‘한일관계 개선 속에서 기획된 〈총독의 딸〉은 한일협정 이후 국내의 협정 반대 여론을 고려해 상영이 계속 유보됨으로써 결국 상영되지 못했다.[7]

‘아로운 삼부작(1961-1962)’은 이처럼 1960년 4.19로 인해 가능해진 일본에 대한 전향적인 문화 분위기 속에서 기획되었고, 박정희 정권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경주되던 시기에 소설로 출간되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 더 나아가 그들 사이의 결혼을 서사화하는 ‘아로운 삼부작’은 한일관계 개선을 국가와 국민 형성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당시 정권의 기조에 편승하는 것이었으면서 동시에 여전히 ‘반일’과 ‘배일’을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당시 민족주의 담론을 전복시키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 논의는 두 측면 중

3) 함충범, 「1960년대 한국영화 속 일본 재현의 시대적 배경 및 문화적 지형 연구=〈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207·217면.
4) 같은 글, 227면.
5) 이화진, 「‘65년 체제’의 시각 정치와 〈총독의 딸〉」,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회, 2017, 279·286면.
6) 함충범, 앞의 글, 215면.
7) 이화진, 앞의 글, 299·302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아로운 삼부작'을 민족국가 건설에 복무하는 서사로 보거나,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키는 서사로 보았다. 한운사의 일련의 작품을 민족적, 국가적, 남성적 주체성의 회복 서사로 보는 경우에는 탈영에서 군부대 복귀, 해방 후 귀향 등의 구조에 강조점을 두었다. 가령 김예림은 도망병이었던 아로운이 주권국가의 국민이 됨으로써 삶이 복구되었다고 보며,[8] 일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선 남성의 서사는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권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국가가 스스로를 독립적이고 성숙한 남성 주체로 정립하고자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며 이러한 상상의 기저에는 '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나 대등한 위치에서 일본과 국교를 맺는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9] 정창훈 역시 '한일 간의 우정과 연애 서사'를 통한 남성 주체(아로운, 작가)의 과거 극복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한 '남성성(민족적 주체성)의 회복 및 갱생'과 겹친다고 보았다.[10] 반면 '아로운 삼부작'을 민족주의의 전복으로 보는 경우에는 아로운이 '인간다운 일본군인'과 유대감을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경숙은 아로운의 사유와 행동에 민족적 강박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작품이 민족 이데올로기적 서사라는 평가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11] 손혜숙은 해당 작품이 '일본=악/조선=선'이라는 구도를 넘어서 '일본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전제로 한 유대'를 보였다는 점에서 "당대 정권이 표방하던 민족주의 담론을 전복"시킨다고 보았다.[12]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해당 텍스트가 학병 경험과 귀환 서사를 통한 '국가 만들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로운의 인물형상화 등에서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조선과 일본의 이항대립 구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면모는 '아로운'의 이름이 갖는 양면적 속성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군 포로와

8) 김예림, 「치안, 범법, 탈주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전후(前後)—학병로망으로서의 『청춘극장』과 『아로운』—」,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0, 71면.
9) 김예림, 「불/안전국가의 문화정치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장—1960년대 영화와 현해탄 서사 재고—」, 『현대문학의 연구』 4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579면.
10) 정창훈, 앞의 글, 186면.
11) 이경숙, 「한운사의 '아로운(阿魯雲) 3부작' 연구—이데올로기적 중층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401-402면.
12) 손혜숙, 「학병의 글쓰기에 나타난 내면의식 연구」, 『어문논집』 75, 중앙어문학회, 2018, 240-241, 253면.

아로운의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아로운(阿魯雲)'은 'alone'을 뜻하고, 한운사가 『구름의 역사』에서 밝혔듯이 성(姓) '아(阿)'는 루쉰의 「아큐정전(阿Q正傳)」에서, 로(魯)는 루쉰(魯迅)에서 따왔고 운(雲)은 작가 자신의 이름에서 가져왔다.[13]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루쉰에 대한 언급이 민족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된다면, '외로움'과 '구름'은 '루진' 등과 같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고결하게 떠도는 인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김윤식은 이러한 한운사의 언급을 바탕으로 작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제시대'를 소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과거의 기억을 '진단'했고, 그러한 한일관계의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론이 '조선의 루쉰되기'와 '자기규정의 근원으로서의 외로움(ALONE)'이라고 보았다.[14] 여기서 '조선의 루쉰되기'와 '외로움'은 갈등을 일으킨다. '조선의 루쉰되기'가 해방 후 국가건설 및 1960년대 식민지 기억 청산과 한·일 국교 정상화에의 기여와 연결된다면, 후자는 아로운이 민족주의 등 특정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체현하지 않고 작품 속 동선에서나 사상적인 면에서 '구름(雲)'처럼 떠도는 존재라는 사실과 연결된다. 김윤식은 소설 『현해탄은 알고 있다』 서문에서 비유적으로 제시된 '명의'가 『현해탄은 말이 없다』의 서문에서 5.16 세력으로 직접 제시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당 텍스트가 5.16 세력(명의)이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진단을 요청하는 의뢰서'임을 강조했다.[15] "이것을 쓰기 직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다(『현해탄은 말이 없다』, 9면)"는 마치 '아로운 삼부작'이 5.16 이후의 현실에 대한 대응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앞서 살핀 것처럼 해당 서사의 창작은 4.19 직후에 시작되었다. 한운사는 『구름의 역사』에서 1960년 4.19 이후, 다시 말해 "광복 후 15년간 높은 벽을 쌓아 관계를 끊어버렸던 일본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 때에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에 자극을 받아 "일제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라디오극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16] 즉 아로운의

13)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2006, 275면.
14) 김윤식, 앞의 책, 296-297, 318-319면
15) 같은 책, 321면.
16)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2006, 126면.

이름이 갖는 양면성과 작품 속 한일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는 4.19 이후 자유로운 문화 분위기와 반일주의의 완화 속에서 형성되었고, '아로운 3부작', 특히 2부『현해탄은 말이 없다』이후부터는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보다 뚜렷한 목적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로운 삼부작'의 서문 속 작가의 목소리를 사후에 덧붙여진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서문 자체가 소설 '아로운 삼부작'을 창작하고 있던 작가의 시대인식과 5.16 세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인식과 관련하여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민 사이에 개재하는, 건강에 좋지 못한 독소를 제거"하는 소설을 쓰는 것과 라디오극을 기획하고 창작할 때 가졌던 의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거나, '정치적/비판적 역사 전망'이 사실상 해당 텍스트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식민지 지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와 우유부단하고 무력한 주인공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신이 식민지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진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을 다른 이에게 '의뢰'하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 건강진단 의뢰를 위한 자기 진술에 '감히'라는 말을 붙이는 태도이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한 개인의 경험을 민족 전체의 그것으로 치환하는 것에서 오는 겸손이겠지만, 결국에는 그 건강 의뢰서의 수신인인 '명의' 즉 5.16 세력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결부된다.

이 맥락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아로운(阿魯雲, ALONE)이 '구름(雲)'처럼 부유하되 일본군부대를 떠나지 못하며, '외로움(ALONE)'을 자기인식의 근간으로 삼으나 그 속에서 새로운 '고향'을 찾는다는 사실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적 정체성 확보라는 구심력과 개별자로서의 인식이라는 원심력 사이의 긴장과 해소 과정은 '명의'의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수술에 부합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가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삼는 장면과 아로운의 인식은 세 가지이다. 첫째, 아로운이 북간도로 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폭탄 공격을 받는 일본 부대로 복귀하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 부분에서 아로운의 행동과 사고 전개는 자연스럽지 않다. 무엇보다도 군부대 복귀로 북간도행이 불가능해져서야 '비로소 미소를 띠는(249면)'

아로운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둘째 ‘고독’은 어떻게 ‘고향’이 될 수 있는가? 아로운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문장을 인용해 ‘고독’이 ‘나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일본에서의 ‘고독’은 어떻게 해방 후 새로운 ‘고향’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 셋째, 국가보다 ‘인간/개인’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히데꼬가 왜 슈발리에 데 그뤼를 미혹하는 마농 레스코에 비유되는가? 슈발리에 데 그뤼는 팜므 파탈의 전형을 보여주는 마농에 의해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히데꼬가 마농에 비유되는 것은 결국 아로운이 군부대 안에서 ‘인간의 길’을 발견하고 히데꼬를 떠나 귀국한다는 결말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민족보다 개인이 우선임을 주장하는 히데꼬가 왜 아로운을 파멸에 이끄는 인물로 비유되는 것인가? 첫 번째 물음은 2장에서, 나머지 두 물음은 3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구심력이 강한 구름(雲)’과 ‘고향을 만들기 위한 외로움(Alone)’이란 관점에서 아로운 삼부작을 분석하는 이 논문은 텍스트와 영향관계에 있는 두 계열의 작품(군)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아로운 삼부작’의 특성을 조망할 것이다. 첫째는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1933)』과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1955)』의 연속선상에서 ‘아로운 삼부작’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러시아 문학 속 잉여인간을 대표하는 뚜르게녜프의 ‘루진’과 아로운을 견주어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고미카와 준페이가 동명의 제목을 가진 앙드레 말로의 작품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한운사가 고미카와 준페이의 영향을 밝혔다는 점에서 세 작품 사이의 선형적 영향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단순한 영향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로운 삼부작’을 앞의 두 작품과 함께 분석할 때, 전쟁 속 인간성의 추구가 갖는 함의와 개인의 능동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텍스트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과 ‘아로운 삼부작’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제국주의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결여와 능동적 행위의 부재는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속 ‘행동하지 못하는 동양인’의 형상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으로 ‘아로운 삼부작’은 뚜르게녜프의 『루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작가는 아로운의 이름 중 두 글자(阿, 魯)를 할애하여 ‘조선의 루쉰되기’라는

창작동기를 보여주었으나,[17] 실제로 아로운의 인물형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뚜르게녜프의 『루진』이다. 작품 속에서 아로운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데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잉여인간 '루진'과의 비교는 아로운의 '방황'이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일본 군부대를 떠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2. 모랄을 통한 '인간의 조건' 탐구와 전쟁의 탈역사화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은 1927년 장제스의 상해 쿠데타 등 정치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근원적 고독을 극복하려는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발표한 해인 1933년에 콩쿠르상을 받았다.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의 주인공 탄광 중간관리자 가지는 중일전쟁에 끌려가 불합리한 군부대 생활, 패전, 소련의 포로 생활 및 탈출 등을 겪다 결국 죽는다.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역자 후기와 해당 책 출판사 서평 등에서는 이 두 책을 묶어 "꼬박 22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주제의, 같은 제목의 두 걸작이 탄생"했으며, 그 공동의 주제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18] 혁명과 전쟁이라는 정치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실존주의적 맥락에서 인간의 존재 조건을 묻는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주제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조건』은 앙드레 말로의 작품과 제목이 같아서 처음에 제목을 뽑을 때 많이 고민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달리 붙일 만한 제목이 없었다"라는 언급에서 저자 역시 말로의 작품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9]

---

17) 한운사, 『구름의 역사』, 275면; 김윤식, 앞의 책, 296-297, 318-319면

18) 김대환, 「옮긴이의 말—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조건」, 『인간의 조건 6』, 도서출판 잇북, 2013, 343면.

19) 고미카와 준페이, 「저자의 말—어떤 한 국면에서의 인간의 조건」, 『인간의 조건 1』, 도서출판 잇북, 2013, 5면. 이행선・양아람은 고미카와 준페이의 문학적 배경으로 헤밍웨이, 게오르규의 『25시』, 노먼 메일러의 『나자와 사자』,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등을 지적하였다. 이행선・양아람,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 기억, 재난・

고미카와 준페이와 한운사 사이의 영향관계는 보다 직접적이다. 한운사는 『구름의 역사』에서 4.19 이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요구되던 시기에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을 보고서 자극받아, 자신이 ‘악몽과 같은 일제 강점기를 청산’하기 위해 나선 것이 『현해탄은 알고 있다』였다고 말한다.[20] 『인간의 조건』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1960년대 한일관계의 개선 노력에 따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선행연구에서 정리했듯이, 『인간의 조건』은 1960년대 일본 문학의 유행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1967년까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으며, 정창화 감독의 영화 〈대지여 말해다오〉(1962)로 번안되는 등 한국 문화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한운사의 ‘아로운 삼부작’ 창작도 그 영향 아래에 있었다.[21]

여기서는 앙드레 말로와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에서 ‘아로운 삼부작’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 ‘휴머니즘/모럴’로 ‘전쟁’에 저항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이 문제 삼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간의 조건』에 식민지 지배, 전쟁 등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소거되어 있는 이유와 고미카와 준페이가 한운사에게 자신이 조선에 대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깔린 논리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아로운이 북간도로 가 독립운동을 하는 대신 일본 군부대로 복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고는 구체적 현실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의 ‘성실한 태도’를 뜻하는 ‘휴머니즘/모럴’을 강조하는 것이 이 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한운사는 제2차세계대전 체험을 소설화했다는 점을 들어 고미카와 준페이와의 동질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1992년 『매일경제』와 2005년 『세계일보』에 연재한 ‘한운사(의) 인생만유기’에서 고미카와 준페이와의 관계를 술회한다. 두 기사에는 『인간의 조건』의 유행, 한운사의 일본방문과 고미카와 준페이 부부와의 만남 등이 공통적으로 나오나, 13년 뒤에 쓰인 『세계일보』

휴머니즘과 전쟁책임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 『기억과 전망』 3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50-51면.

20) 한운사, 『구름의 역사』, 126면.

21) 이행선・양아람, 앞의 글, 60-62면.

기사는 고미카와 준페이 부인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애상이 중심이 된다.

> 당대를 주름잡던 日本의 톱클래스작가들이 나와주었다. 환영파티다. 그중에서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人間의 條件」을 써서 戰後日本을 떠들썩하게 한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씨. (…) 고미카와 씨에게 각별한 우정을 느낀 것은, 그가 일본 군국주의의 골계성(滑稽性)을 서슴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한, 이른바 나와 함께 「人間의 편」에 선 작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딴 스케줄이 있다는 데도 우리를 굳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 헤어질 때 그 악몽같은 군국주의 시대에서 빨리 이 세상이 멀어지도록 하자고 서로 격려를 했다. 벤츠차를 타고 가라기에 나는 굳이 사양했다. 굳이 타라기에 "그럼 옛날의 배상조로 타고 갈까요……"했더니 "뭐라구요" 하고 그는 정색을 했다. "㉠나는 조선 사람들한테 배상할 짓을 하지 않았어요"
>
> —「한운사 인생만유기 38」, 『매일경제』, 1992.11.26. 강조는 인용자.

> 그는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며,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가슴 속에서 오열했단다.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고 자규했단다. ㉡작가라는 것의 한계를 개탄한 것 같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흐느끼다시피 슬퍼졌다.
>
> 그렇다. 작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까닭은 이렇다고 외쳐대는데,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세상은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나는 그의 참회를 읽으면서 하염없는 우정을 느꼈다.
>
> —「한운사의 인생만유기 38—日베스트셀러 작가와 교감」, 『세계일보』, 2005.6.2. 강조는 인용자.

두 회고는 한운사와 고미카와 준페이 사이의 동질감에 생긴 균열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인용문 마지막 문장은 한운사가 고미카와 준페이에게 느낀 동질감을 무너뜨린다. 한운사는 '나와 함께 인간의 편에 선 작가'에게 관심과 동질감을 느꼈지만, 정작 그는 한운사에게 자신은 조선 사람에게 배상할 짓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해당 일자의 회고는 저 문장으로 끝나고 한운사는 이 문장에 부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용문은 고미카와 준페이가 아내의 죽음에 대해 쓴 글에 대한 한운사의 감상이다. 2005년에 고미카와

준페이와의 교감을 술회한 글에서 고미카와 준페이가 1995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쓰지 않았다는 점도 의아하지만, 작가의 한계를 아내의 죽음과 연결시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글쓰기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한 자괴감(㉡)과 아내의 죽음은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운사는 고미카와 준페이가 작가라는 것의 한계를 토로한 것을 ‘참회’로 인식하고, 그 참회 속에서 ‘하염없는 우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두 편의 회고 속 고미카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그의 참회는 아내의 죽음이 촉발한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감상에 머물러 있다. 즉 한운사는 ‘인간의 편’에 서서 태평양 전쟁기의 체험을 썼다는 점에서 고미카와 준페이에게 동질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괄호 칠 때 성립하는 것이었다.

앙드레 말로의 동명 작품과 비교해 볼 때,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주인공 가지가 체제 비판과 개혁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도드라진다. 앙드레 말로의 작품에서 허무주의에 빠진 인물들은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다른 동지들과 연대하여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한다.[22] 하지만 『인간의 조건』에서 구체적 이념을 바탕으로 연대하여 혁명을 수행하는 이들은 서구 남성들이다. 말로의 작품에서 동양인들은 ‘동양적 정관과 침잠의 세계’에 빠져 구체적인 사회변혁을 시도하지 못한다. 중국의 뿌리로부터 유리되어 서구인의 손으로 ‘가꾸어 변화시킨’ 중국인 첸의 극단적인 테러리즘은 유럽 혁명가들로부터 배척받는다.[23] ‘체제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동양’이라는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을 배면에 깐 이 작품에서 서구 남성 혁명가들은 이념과 행동의 일치를 바탕으로 혁명을 수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체의 가족과 애정관계를 떠난다.[24] 이는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에서 정반대로 나타난다.

고미카와의 작품에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저항과 연대는 부재하며, 인물은

22) 오세정, 「앙드레 말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실존의식과 존재의미」, 『비교문화연구』 47,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7, 206면.
23)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39・40-41면.
24) 같은 글, 42-43면.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휴머니즘을 잃으면서까지 아내를 만나러 가다 죽음을 맞이한다. 가지의 사유와 행동의 궤적을 따라가 보자. 먼저 살펴볼 것은 작품에서 주인공 가지의 휴머니즘이 전쟁, 일본의 파시즘 등에 대한 저항이면서 동시에 공모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 라오후링(老虎嶺)에서 망령이 돌아다니고 있다. 휴머니즘의 망령이…….
> —『인간의 조건 2』, 38면[25)]

>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해 아시아인인 일본인은 내일 아시아인인 중국인 일곱 명의 목을 벤다. (…) 그리고 일본인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지와 같은 창백한 인도주의의 유령이 호혜 평등의 카무플라주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
> —『인간의 조건 2』, 208면.

작가는 『공산당 선언』 속 '유럽의 구체제/자본주의'와 그것을 무너뜨릴 '공산당'이란 유령의 관계를 차용하여 일본의 '파시즘/전쟁'과 휴머니즘의 관계를 설명한다. 문제는 가지가 신봉하는 휴머니즘이 일본 전시체제의 극복이 아니라 그것의 폭력성을 가리는 '위장(카모플라주)'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이 언급은 가지가 가지는 휴머니즘의 외연과 한계를 정확히 보여준다. 가지는 '전쟁이라는 이름의 기계 부품(『인간의 조건 1』, 173면)'이며, 이 존재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는 "휴머니즘의 위선자(『인간의 조건 2』, 35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는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당치도 않은 현실인 전쟁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인간의 조건 4』, 169면)'고 항변한다.

휴머니즘에 바탕한 가지의 일본 전시체제와 파시즘에 대한 저항은 '모럴로 저항'한다는 말로 요약되며, 이 '모럴을 통한 저항'은 '전쟁이란 기계의 톱니바퀴'라는 가지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속 인물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체제변혁을 수행함으로써 근원적 고독과 허무를 극복해갔다면, 고미카와 준페이의 작품에서 휴머니즘은 어디까지나

25) 고미카와 준페이, 김대환 옮김, 『인간의 조건 1-6』, 도서출판 잇북, 2013. 이후 해당 텍스트의 인용은 이 판본의 것임.

군대 부조리에 맞서는 것에 한정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 파시즘에 대한 저항으로 제시되는 소련군으로의 투항이 비겁한 행동으로 비판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조건 3』은 일본의 군국주의에 비판의식을 공유하는 주인공 가지와 같은 내무반의 고참병 신조가 탈영을 놓고 벌이는 갈등을 중요하게 다룬다. 가지는 신조의 탈영과 소련군으로의 망명을 '비겁한 행동'이자 군대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해 도망간 "패배의 표명(『인간의 조건 3』, 311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비판한다. 신조 역시 자신이 "모럴로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말한다(『인간의 조건3』, 272면). 이 소설에서 저항은 어디까지나 일본 군국주의의 톱니바퀴로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체제를 벗어나는 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체제에 대한 반성적 사유와 월경의 가능성을 부정해버린 인물이 '모럴로 저항'하는 것의 최대치는 초년병 배급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지와 그가 이끄는 초년병들은 소련의 공격을 앞두고 고참병이 배급품을 독점하는 것에 저항하고, 가지는 부대의 지휘권을 획득한다. 이러한 저항이 가능했던 것은 다음 날 소련의 공격으로 부대가 전멸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모럴로 끝까지 저항'하는 이 장면이 자못 극적이고 진지하게 그려지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서 배급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일회적이고 지엽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그 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모럴로 저항'한다는 텍스트의 핵심 명제는 한운사의 '아로운 삼부작'의 근간을 이루고, 이 논문이 문제 삼고 있는 아로운의 북간도행 포기와 군대복귀라는 작품의 균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처럼 가지의 '휴머니즘'은 자신이 속한 사회 시스템의 외부를 사유하지 못하며, 그에게 있어 '행동'은 체제를 넘어설 수 없다. 텍스트는 오키시마의 입을 빌려 중국인이 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한다는 '훌륭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조국을 위하는 것이며 동시에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되지만, 일본인이 '훌륭한 목적' 즉 일본의 군국주의에 저항하는 것은 곧 생활의 포기가 된다는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인간의 조건 6』, 202-203면). 『인간의 조건 6』에서 일본의 패망 이후 가지와 가지의 회사동료였던 오키시마, 가지의

부인인 미치코 등은 일본인이 중국인 및 소련 병사들과 다른 처지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일본과 전쟁을 벌인 소련 병사와 중국인은 "목적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었지만, 일본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저항이 '비겁한 도망'이 되어버린 이상, 남는 것은 군국주의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던 일본인의 처지에 대한 변명이다. 가지는 반복해서 전쟁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명령서'에 의해 자기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말한다(『인간의 조건 4』, 246면; 『인간의 조건 6』, 99면).

전쟁기계의 부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인식은 소련군인과 중국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들어 그들의 '훌륭한 목적'을 부정해버리는 것으로 나아간다. 해방군인 소련군 역시 파시즘을 신봉했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악행을 저지른다. 패전 후 일본인들이 마주하는 천박하고 비열한 중국인과 소련군의 형상화를 통해 '짐승과 같은 돼먹지 못한 공산주의자(『인간의 조건 6』, 32면)'라는 이미지가 생성된다. 결국 '혁명을 수행하는 것 역시 용렬한 인간'이며(『인간의 조건 5』, 274면), '파시즘을 위한 사역보다 사회주의를 위한 사역이 더 낫다는 것은 관념적인 비교'에 불과하게 된다(『인간의 조건 6』, 299면). 체제를 반성적으로 사유할 가능성을 닫아버린 텍스트에서, 전쟁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조건이 되며, 파시즘과 사회주의라는 체제 역시 관념적인 영역으로 한정된다. 결국 남는 것은 '용렬한 인간'과 '성실한 인간'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수동적인 대립항이다. '모럴로 저항'한다는 가지의 휴머니즘은 이처럼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전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환원해버리고, 집요하게 체제 안에서의 성실을 추구한다.[26] "내가 일본인인 것은 내 죄가 아니야. 그런데 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내가 일본인이라는 거야(『인간의 조건 2』, 157면)"라는 언급에서 가지는 자신이 일본이라는 국가와 분리될 수 없음을

26) 이는 조선인을 대표하는 장명찬이 가장 비열하고 악독한 인물이라는 사실과 "일본도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 중국 대륙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지 말고 만주만 공동으로 개발해도 가난을 없앨 수 있었을 텐데(『인간의 조건 6』, 93면)"와 같은 나루토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텍스트는 조선과 만주 지배에 대한 문제의식이 옅으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가난을 없애기 위한 '욕심'과 같은 추상적인 말로 설명한다.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덧씌워지는 죄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가지의 인식은 루쉰이 제시한 신사조 운동의 속성인 '결심자식(抉心自食)', 즉 '자기 심장을 후벼파서 먹기'와 대비된다. 신사조운동의 수행자들은 자신들이 타파하고자 하는 중국의 낡은 전통과 문화가 자신의 피와 살의 일부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 역시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자기 심장을 후벼 스스로 먹어 죽음에 이른다'는 「묘갈문」의 언급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된다.[27] 루쉰이 중국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비판하는 중국의 구습이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통렬히 인식했다면, 가지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와 분리될 수 없는 일본의 파시즘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에서 서구 남성이 공산주의 이념에 바탕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들을 속박하는 일체의 가족과 애정관계에서 벗어나야했다면, 이념에 바탕한 행동의 가능성이 제거된 가지는 일체의 관념적인 이념 비교에서 벗어나 유일한 실체를 지닌 '미치코와의 사랑'을 추구한다. 체제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상실한 추상적인 모랄의 강조는 결국 '피해자로서의 일본인'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고미카와 준페이는 한운사를 향해 "나는 조선 사람들한테 배상할 짓을 하지 않았어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민지 역사 정리를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참회'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운사는 양심적인 일본인 나까무라로 하여금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뺏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게 하며, 앞으로 세계는 '국경과 언어와 풍속과 피부 빛깔의 유무를 초월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두 부류로 나뉠 것'이라고 말한다(『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102면)[28].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는 선한 사람들의 연합이란 한일국교정상화를 염두에 둔 전망일 것이다. 이 연대에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인이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을 때, 한운사가 고미카와 준페이에게 느낀 동질감은 실체를 가지기 어렵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 가능성을 그림으로써 식민지 시기를 청산하려는 태도

27) 林岗, 「新思潮與"抉心自食"一重讀《墓碣文》」, 『新地文學』 34, 新地文化藝術有限公司, 2015, 108-110면.
28) 한운사, 『아로운 1-3』, 정음사, 1985. 이후 해당 텍스트의 인용은 이 판본의 것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로운이 가지가 보여주는 '모랄을 통한 저항'을 답습한다는 사실이다. '아로운 삼부작'은 고미카와의 『인간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군부대 내의 폭력적인 문화에 '모럴'로 저항하는 것을 골자로 삼으며, 그 모랄로 저항하는 것의 대단원은 '악한 일본인' 모리가 아로운의 휴머니즘에 감화받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으로 전쟁에 강제로 동원된 아로운이 가지와 마찬가지로 체제 밖을 사유하지 못하고 부대 내의 폭력에 '모랄'로 저항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일본인 가지가 '성실'한 휴머니스트로서의 속성을 가지기 위해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했고, 이것을 위해 일본 군국주의라는 기계의 한 부속품이라는 인식과 체제의 관념적 이해가 필요했다. 반면 피식민지인인 아로운에게는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관념적 사유 및 구체적 저항과의 거리두기가 필요 없지 않은가? 물론 한운사의 실제 학병체험과 소설 속 아로운의 학병체험이 일본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주둔한 부대에서 탈출해 중국 등지로 가 일본에 저항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윤식이 지적했듯이, 일본 규슈에서 탈영해 국내로 잠입, 만주를 거쳐 임천의 광복군 제3지대에 간 김문택의 사례가 있었다.[29] 더욱이 작품 안에서 경희가 아로운에게 실제 김문택이 밟았던 것과 같은 일본 본토에서 광복군으로 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로운은 광복군 행이 아니라 일본 부대로의 복귀를 선택한다.

> 이때 아로운은 그것이 어느 지역일까를 오래 재보다가 문득 13부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의혹은 순식간에 커지고 거기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
>
> "나 부대 좀 갔다 오겠읍니다."고 그는 엄숙히 선언했다. "다녀올 일이 있읍니다."
>
> 경희는 무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돼먹지 않은 자식이라고 욕하는 것 같았다. 히데꼬는 위험하다고 한사코 말렸다. 히데꼬 어머니까지도 걱정스러운 낯으로 그를 붙들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아로운의 마음속에서 요동하는 하나의 결심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
> —『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247면.

29) 김윤식, 앞의 책, 294면.

“아로운이 웬일이냐?” 그의 옆에 탔던 리노이에는 내려오면서 소리를 질렀다.
“니 미쳤나, 이런 데 나타나게?”
아로운은 비로소 모자를 벗고 이마의 땀을 닦으며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지따 반도서 보니까 니가 타죽는 것 같더라.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왔다.”
—『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249면.

친구의 동생인 경희는 부민관에서 학병을 독려하는 고이소 총독에게 조선의 안전을 책임질 것을 요구한 아로운을 존경했고, 일본에 찾아와 그에게 북간도행을 권한다. 경희의 끈질긴 설득 끝에 아로운은 탈영을 결심하지만,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자 부대원들을 걱정해 복귀를 결심한다. 경희의 분노와 히데꼬 모녀의 걱정에도 부대로 복귀해 부대원과 조우할 때, 그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웃는다. 아로운은 휴가를 받아 부대 밖에 나와 있었으며, 북간도로 가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그가 굳이 일본 부대로 복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는 부대로 복귀해 자신을 괴롭혔던 모리 상등병을 구한다. 경희는 아로운의 복귀를 놓고 ‘북간도행에 지독한 겁을 집어먹었던가, 깨끗이 일본 황군의 일개 충성스러운 부대원’이 되었는가 고민하지만(『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258면) 끝내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선으로 귀국한다. 경희는 “조선의 독립을 꿈꾸던 항일정신의 권화(勸化)”였던 아로운과 북간도 대신에 일본 부대를 선택한 아로운 사이의 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민관 사건’이 아로운이 군부대의 부조리를 견딜 수 있는 자존심이자 멍에라는 김윤식의 지적에 더해,[30] 그것이 아로운의 군대 복귀를 단순한 두려움과 체제에의 굴종 이상임을 말해주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인물의 캐릭터 형성과 작품의 내적 논리에 균열을 내는 아로운의 부대 복귀라는 행동을 ‘부민관 사건’이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염두에 둔 이 텍스트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대를 그리기 위해 아로운이 일본 군부대에 복귀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로운은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폭격으로 죽을 위기에 빠진 모리를 구해준다. 이는 아로운의 ‘모랄을 통한

30) 김윤식, 앞의 책, 307-308면.

저항'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자 결말에서 모리가 감화되는 장면과 연결된다. 아로운의 이 휴머니즘은 가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절대화함으로써 전쟁의 구체적인 구도와 원인을 은폐된다. 독립운동 대신 군부대 복귀를 선택한 아로운은 미국의 일본 주택지 폭격을 '하나의 야만행위'라고 비판하며 '그것이 군국주의를 멸망시키는 데 꼭 필요한 방법'인지를 묻는다(『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248면). '모랄'을 바탕으로 이성적인 일본인과 연대를 맺고 비인간적인 일본인을 '교화'시키는 서사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인물의 인격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그치고 만다.

『인간의 조건』과 '아로운 삼부작'은 모두 전쟁을 추상화하고 있고, 두 작품에서 강조하는 휴머니즘은 군대 안에서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물론 『인간의 조건』 속 가지가 중국인, 소련인 등과 연대를 맺지 못하고 포로수용 탈출 이후 죽는 반면, 아로운은 '선한 일본인'과 연대했고 일본의 패전 후 조선으로 복귀한다. 이는 전범국가와 피식민국가의 전쟁경험 형상화 차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로서 일본인이 맞이하는 비극의 형상화와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의 주역이 되어야 할 조선인 학병의 귀환 형상화의 차이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소설이 일본 제국주의의 경험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차적으로 그것은 앙드레 말로의 소설 속 '행동하지 못하는 동양인', 즉 이념에 기반한 체제변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순응적 동양인의 형상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고미카와 준페이의 작품에서 소련군으로의 항복처럼 일본의 전시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은 부정되며, 한운사의 소설에서 아로운은 독립운동을 거부한다. 그리고 그는 미치코와의 사랑을 위한 탈영 후 다시 부대로 돌아온 뒤에 일본인 군의관의 말대로 군대 내의 폭력을 견디고 자신이 행동할 때를 기다리기로 다짐한다. 두 사람 모두 제국주의 침략전쟁 속에서 일본군국주의와 직접적으로 대결하지 않았다. 식민지 경험의 소화라는 것이 식민지 문제의 은폐가 아니라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자연화하여 그 속에서 개인의 모랄을 통한 '인간의 조건'을 탐구하는 것을 제대로 된 식민지 시대 청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아로운의 고독과 보편적 인간의

추구가 당대 질서와 갖는 친연성을 『루진』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다.

3. 구심력이 강한 ‘구름(雲)’과 고향을 만들기 위한 ‘외로움(Alone)’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로운(阿魯雲)의 이름 중 두 글자(阿, 魯)가 루쉰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텍스트는 「아큐정전」 등 루쉰의 작품과 관련성이 적으며, 한운사와 루쉰의 작가적 면모와의 관련성도 말하기 어렵다. 아로운의 ‘모랄’ 증명이 악한 일본인 모리의 교화인 이상, 그는 일본 군부대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히데꼬와 있을 때보다 리노이에 등 부대원과 함께 있을 때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아로운의 ‘고독/방황’이란 것 역시 재고의 대상이 된다. 이 장에서는 ‘아로운’의 캐릭터 형성이 루쉰이나 그의 작품이 아니라 뚜르게네프의 ‘루진’과 긴밀히 연결되며, 아로운은 일본군부대로부터 일정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외로움이 결국 자신의 가치 증명을 위한 도구였음을 살펴볼 것이다.

‘아로운 삼부작’에서 아로운의 ‘정직주의’ 혹은 ‘진정한 인간’에 대한 관념은 나츠메 소세끼, 앙드레 지드, 니체, 뚜르게네프 등에 대한 언급을 통해 부연되고, 정작 루쉰과 그의 작품은 언급되지 않는다. 이들 작가와 철학자 중 뚜르게네프의 『루진』은 서사전개와 캐릭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차적으로 『루진』은 ‘선한 일본인’ 나까무라 및 히데꼬와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부대의 고참병인 나까무라의 집에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히데꼬는 아로운이 조선인인 줄 모르고 조선인이 도둑질을 잘한다는 편견을 드러낸다. 아로운은 제 동생의 편견과 일본의 조선 지배를 진심으로 사과하는 나까무라를 ‘진정한 인간이자 동지’라고 생각한다. 감격에 빠진 아로운이 책장에서 꺼내드는 책이 뚜르게네프의 『루진』이다. 아로운은 히데꼬에게 『루진』을 ‘빌려가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히데꼬의 편견을 일깨워주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아로운과 히데꼬는 연인관계가 된다.

다음으로 ‘루진’은 아로운이 가진 ‘이상과 행동의 괴리’와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로 기능한다. 아로운의 ‘신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다른 '선한 일본인' 다나까는 아로운이 압수당한 『루진』을 읽은 뒤 "허나 이상을 알기만 했지, 행동은 하지 못했어. 쓸쓸한 친구더라. 그게 바루 아로운이 아닌가?"[31]라고 말한다. 여기서 높은 이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잉여인간의 전형으로서의 루진이 아로운의 캐릭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나까무라와의 연대 장면에 『루진』이 사용되었듯이, 아로운은 루진을 통해 자신을 알아봐 주는 다나까를 '인간다운 인간'이라 칭하고 그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낀다. 또한 '루진'은 아로운의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환기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 앞에 초탈한 자세를 취하려는 아로운을 향해 히데꼬가 "루우진 선생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32] 결국 '아로운(阿魯雲/Alone)'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구름'과 '외로움(Alone)'이고, 이것이 상징하는 아로운의 방황과 외로움은 루진, 더 나아가 러시아 문학 속 '잉여인간'의 특성과 친연성을 지닌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아로운은 루진 등 러시아문학의 '잉여인간'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잉여인간(superfluous man)'은 '사회와 갈등을 겪는 무력한 귀족으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민감하지만 개인의 나약함과 정치적・사회적 제약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인물이며, 그들의 특징은 주변환경과의 소외로 인해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낙오'된다는 점이다.[33] 루진이 잉여인간으로서 가지는 특성, 즉 '기반이 없'으며 '텅 비어' 있고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방랑'하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에 행동하지 못'하는 특성은 아로운의 표면적 속성과 유사하고, 텍스트에는 둘 사이의 유사성이 직접 지시된다.

하지만 아로운과 루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 두 사람의 '기반 없음'의 성격이 다르다. 루진은 자신을 "발밑에 땅이 없으니 스스로 기반을 구축해야"하지만 그 기반을 닦는 데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한다.[34] 루진의 '기반

31) 한운사, 『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138면.
32) 같은 책, 201면.
33) Ellen B. Chances, *Conformity's Children: An Approach to the Superfluous Man in Russian Literature*, Slavica Publishers, 1978, pp.17-18.
34) 이반 세르게예비치 뚜르게녜프, 이항재 옮김, 『루진』, 열린책들, 2011, 210면. 이후 해

없음'은 자유주의적 인뗄리겐찌야들이 근대화되고 있는 서구와 비견되는 러시아의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아로운의 '기반 없음'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에 기초한다. 여기서 아로운의 무력감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기초해 있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일본에 주둔 중인 일본군에 소속된 아로운은 일본과 조선의 관계 혹은 일본 군국주의의 구조적 이해 및 비판과 거리를 두고 오로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 '진정한 인간과 그 인간들 사이의 연대'만 추구하고 있다. 그의 구체적 '기반 없음'은 아로운의 귀국 이후 해방된 한국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나, 한운사는 한국으로 귀환한 아로운의 서사를 쓰지 않는다.

다음으로 루진은 정치적·사회적 제약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황을 하나, 아로운은 일본 군부대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일본의 패망 이후 조선으로 귀국한다. 첫 판본에서는 루진이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1860년에 재발간하면서 뚜르게녜프는 루진이 프랑스 혁명에 참여하다 죽는 내용의 제2의 에필로그를 추가한다.[35] 반면 아로운은 일본 군부대에서 행동의 때를 기다리다 해방을 맞이하며, 이후 주위 사람들에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으며 조선으로 귀국한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행동' 양상이 다르다. 간단히 정리하면 루진은 다양한 행동을 시도하지만 그 행동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내심'이 없었고, 아로운은 훗날을 기약하면서 '행동'을 끝까지 연기하는 '인내심'이 많았다. 뚜르게녜프의 소설에서 루진 역시 이상과 말뿐 행동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나(101면), 실제로 그는 다른 지주의 영지 개혁, 중학교 교사로서의 학교 개혁 등을 계속 시도했다. 다만 그는 실무적인 사람이 아니며(214면)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219면) 결국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다. "왜 자네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뿌리를 내리지 않았는가?(224면)"라는 레쥬뇨프의 안타까움은 이상주의로 인해 현실에서 기반을 끝내 닦지 못한 루진의 속성을 단적으로

당 텍스트의 인용면수는 이 판본의 것임.

35) 이항재, 「역자해설—한 자유주의적 이상주의자의 삶과 죽음」, 같은 책, 235-236면.

보여주며, 루진 스스로도 자신에게 인내심이 없다고 말한다(210면). 반면 아로운에게 있는 것은 추상적인 '진정한 인간'이라는 관념이며 따라서 그에게는 '이상'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 루진에게 근대화되지 않은 러시아의 현실이 문제였다면, 아로운에게는 '토양'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없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그가 일본으로부터 탈출해 행동할 단 한 번의 기회였던 북간도행을 거부하고 결국 일본 부대로 복귀하였고, 히데꼬와의 사랑을 위한 탈영 후 다시 부대로 돌아온 뒤에도 '인내'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사실이다. 아로운은 정신을 잃은 상태로 다시 일본군부대로 돌아온 뒤 또 다른 '선량한 일본인'인 군의관을 만난다. 그는 아로운에게 "바다를 건너자면 큰 배가 필요하다. 조급한 마음으로 위험하게 서둘진 말거라"라고 조언하고, 아로운은 "10년을 견디어 보마. 아니 20년, 30년이라도 견딜 수 있다. 다만 꺼지지 말아다오, 인간의 희망, 내일에 살 수 있다는 희망, 학대와 억압과 부당한 야만적 취급의 습성이 없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세계가 오고야 말리라는 희망"이라고 말한다(『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328-329면). 아로운이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현실에는 일본의 조선 지배, 일본 파시즘의 폭력 대신에 군대 부조리만이 남아 있다. 비록 이 다짐 뒤 육군병원을 탈출하려다 바로 잡히지만, 이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인내'하라는 군의관이 옳았음을 다시 인정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상관없이 언제까지나 일본 군부대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길' 추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부조리를 견뎌야 한다는 것은 히데꼬가 슈발리에 데 그뤼를 비극적 삶에 빠뜨리는 마농 레스꼬로 비유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 "국가 같은 건 멋대로 되라구 그러세요. 저는 인간이 더 중해요. 야노 히데꼬와 아로운이라는 인간이 더 중해요"
>
> ㉠마치 슈발리에 데 그뤼가 마농한테 설복을 당할 때처럼, 아로운의 마음은 슬프고 또 기뻤다.
>
> —『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206면.

㉡아로운은 진정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히데꼬 때문에 스즈끼를 죽일 뻔했구나.
(…)
네 하고 히데꼬는 마음속에서 대답을 했다. 하면서 생각했다. 그런 결심이 간단히 실천에 옮겨진다면, 이 세상 골치 아픈 일이 덜어지게……
—『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209면.

부대원 스즈끼와 차를 타고 나온 아로운은 미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히데꼬가 걱정이 되어 차를 스즈끼에게 맡기고 히데꼬를 찾아나선다. 방공호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공습이 끝나자 히데꼬의 집으로 간다. 위의 첫 번째 인용문에서 히데꼬는 일본과 조선이라는 국가와 민족 개념을 떠나 아로운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아로운은 그녀와 도망가기로 결심하지만 부상당한 스즈끼가 히데꼬의 집을 찾아오자 부대에 복귀하기로 한다. 앙투안 프랑수아 프레보의 소설『마농 레스코』에서 명문가의 자제 슈발리에 데 그뤼는 마농에게 매혹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마농은 죽고 그는 겨우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국가보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히데꼬가 마농이고 그녀와의 도피를 결심한 데 그뤼가 아로운이라면 그의 가족은 일본 군부대가 된다. 여기서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는 히데꼬의 주장이 데 그뤼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던 마농의 유혹에 비유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분명 ‘아로운 삼부작’은 표면적으로 국가와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인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강조는 피해야 할 것으로 그려진다. 그는 히데꼬와 시간을 보내는 사이 부대원 스즈끼가 큰 부상을 입자 죄책감을 느끼며 부대로 복귀한다(㉡). 마치 북간도행을 거부하고 부대로 복귀했던 것처럼 그는 히데꼬와의 도피를 거부하고 부대로 돌아간 것이다. 물론 이후 아로운은 히데꼬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러한 ‘방황’은 ‘도망질(『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253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는 탈영 후 다시 부대에 돌아온 뒤 무의미한 ‘도망질’ 대신에 부대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군대 부조리에 저항하면서 언제까지나 ‘인내’할 것을 다짐한다. 결국 아로운에게 일본 군부대는 ‘가족’이었고, 그는 이 ‘가족’을 떠나지 못하고 일정 반경만 떠도는 구름이었다. 그리고 데 그뤼와는 달리 아로운은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가족’으로 돌아와 자신의 ‘본분’을 지킨다.

㉠“아인잠카이트, 아인잠카이트, 두 마이네 하이마이트 아인잠카이트!”(고독이여, 고독이여, 나의 고향 고독이여!)
그것은 니이체가 한 소리라던가
㉡고독 속에 파묻히는 것은 쉬우나, 현실에 잡힌 발목은 어떻게 빼낼 수 있단 말인가.
(…) ㉢완전무결하게 자기만이 드나들던 가슴속 한 귀퉁이에 히데꼬가 자리잡고 있다.
그녀는 작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참 미덥지 못한 분이시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151면

위의 인용문은 ‘고독’과 히데꼬와의 삶 사이의 길항관계를 잘 보여준다. 아로운은 탈영 후 히데꼬와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히데꼬와의 사랑으로 고독은 깨어지고(㉢), 아내와의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고독은 무책임을 뜻했다(㉡). 여기서 ‘고독이 나의 고향’이라는 인용은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고독이 고향’이라는 것은 ‘고향’을 상실한 인간, 다시 말해 자신의 연속성이 박탈되고 자신의 존재 근원이 되는 대지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나와 모든 사물과 소통함으로써 존재의 기반을 되찾는다는 의미이다.[36] 니체가 고독을 통해 진실성에 바탕한 자기자신과의 대면과 자기초월을 강조했다면, 아로운에게 고독이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군대 문화 속에서 ‘진정한 인간’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소외감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아로운의 ‘고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외로움’이 ‘아로운 삼부작’의 창작방법론이라 할 때, 아로운은 서사전개상 필연적으로 히데꼬를 떠나 군부대로 돌아가 다시 ‘고독’해야 한다. ‘히데꼬/마농’의 꾐에 빠져 탈영한 ‘아로운/데 그뤼’는 ‘고독’을 위해 ‘군부대/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아로운은 구심력이 강한 ‘구름(雲)’이며, 군부대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히데꼬와의 사랑이란 원심력은 그러한 구심력에 비해 약하다. 결국 ‘루쉰 되기’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시대에 대한 전망은 부재하고, ‘외로움’ 역시 그러한 비판적 세계인식과 거리를 둔 재귀적 존재증명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아로운은 해방 조국에서

36) 김재철・구보상, 「고독에 관한 니체의 성찰」, 『철학연구』 142, 대한철학회, 2017, 56-58면.

'유능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군부대에서 외로워야 했다. 이때의 '유능한 지도자'는 작품 속 아로운처럼 텅 빈 기표일 뿐이며, 루쉰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이것을 라디오극 창작 당시의 '일제시대 청산'과 '아로운 삼부작' 집필 당시의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보다 분명한 시대 흐름 속에서 일제 식민지 경험을 소화하겠다는 창작 목적과 연결시키면, 아로운이 보여주는 '외로움'이 해방 후 국가건설과 한일관계의 회복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도출된다. 어떻게 아로운의 '외로움'이 이러한 기능을 감당하는가? 첫째 아로운의 '외로움'은 전쟁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추상화함으로써 '진정한 인간' 사이의 연대란 관념을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에서 진정한 인간은 민족과 국가 관념을 떠나서 전쟁을 비판한다.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에 비판적인 나까무라는 물론 식민지인 아로운도 미군의 폭격을 비판하며 전쟁 자체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고(『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248면), 미군 포로 역시 '전쟁하는 조국이 밉다'라고 말한다(『아로운 1 현해탄은 알고 있다』, 316면). 전쟁에 대한 구조적인 사유 대신 전쟁 일반의 폭력에 집중할 때, 그러한 폭력에 반대하는 '진정한 인간' 사이의 연대가 가능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자체를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본 개개인을 분리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인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연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아로운의 '외로움'은 '모랄을 통한 저항'과 그 결과를 통해 그가 해방 조국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 역할을 한다. 일본 군의관은 아로운에게 '인간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지 말고 인내할 것'을 충고한다(『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328면). 아로운은 그 말을 듣고도 히데꼬에 대한 걱정으로 한 번 더 탈영하다 붙잡히지만, 군의관은 재차 인내할 것을 강조한다. 이후 아로운은 군대 내에서 인내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으로의 길을 찾는다. 모리 상등병은 "조선놈보다 일본 사람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로운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아로운 3 승자와 패자』, 157면). 아로운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진정한 인간으로의 길'을 설파함으로써 모리의 살해의지를 약화시킨다. 모리의 총은 아로운을 맞히지 못하고, 아로운은 모리의 석방을 요구한다. 아로운은 군국주의자들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모리도 그도 동지라는 사실을 다시 역설하고, 모리는 눈물을 흘린다. 모리의 '참회'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그의 목적이 실패로 끝났음을 보여준다. 이 대목에서 아로운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길을 알았다' '아지도(阿知道)'로 다시 짓는다. 즉 일본 군의관이 말한 '인간의 길'을 모리의 교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작가는 모리의 감화 바로 뒤에 리노이에가 히데꼬에게 '조선의 백성들이 아로운과 같은 유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아로운의 '모랄을 통한 저항'이 곧 미래 지도자로서의 자질임을 분명히 한다. 아로운은 '군국주의자' 앞에서 조선인도 일본인도 다 피해자이며 그러한 폭력에 저항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악한 일본인' 모리에게도 일깨움으로써 해방 후 조국의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증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로운의 '외로움'은 구체적인 이념과 행동을 제시하지 않은 '백지상태'를 제공하여 "한・일 간의 고질(痼疾)을 수술하고자 감연히 나"선 명의, 즉 5.16 세력들이 자유롭게 집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아로운도 스스로를 '지금은 조용하지만 언젠가는 천지를 뒤흔들 구름'으로 인식하고(『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일본 군의관도 훗날을 위해 지금은 인내할 것을 강조한다. 영지 개혁이나 학교 개혁을 시도했던 루진과 달리, 아로운은 말 그대로 텅 빈 인간으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비판적 역사 전망이 부재하고 행동의 순간을 계속해서 미래로 미루는 것은 결국 현실 권력에의 순응으로 이어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게 가능했던 단 하나의 행동, 즉 항일운동을 위한 북간도행을 아로운이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아로운은 물론 주변 사람도 그를 '부민관 사건'을 일으킨 '항일정신의 권화(勸化)'로 인식하지만,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어떠한 항일 행동도 하지 않는다. 리노이에는 탈영 후 잡힌 아로운을 처벌할 근거를 찾으려는 보꾸모또 오장에게 "엉뚱한 죄명은 씌우지 말란 말여, 내 말은… 사상가니 독립지사니……우습잖소, 형씨가 생각해두……"라고 말한다(『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321면). 이 언급은 아로운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인 동시에 아로운의 민낯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는 사상가도 독립지사도 아니며 사랑 때문에 탈영했다

돌아온 도망병일 뿐이다. 그 '사랑으로 인한 탈영'마저도 '죄 없는 여편네만 고생시킨 도망질'로 평가절하된다(『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253면). 북간도로 가 항일운동에 매진하는 것을 그리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에는 정당했던 그 행동이 1960년대 군부정권 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북간도에서의 저항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하기 어려웠고, 아로운이 1960년대 남한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조선으로의 귀환까지 일본 군부대를 떠나서는 안 되었다.

한운사는 아로운전을 10부까지 쓸 것이라고 말했다.[37] 4부의 해방 후 조국의 발전 5부 한국전쟁으로 시작해 9부의 근대화와 통일작업, 10부의 남북통일까지 그리겠다는 그의 작품구상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는 해방 이후 역사 속에서 아로운의 구체적 행동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로운'의 이야기는 '건강진단을 요청하는 의뢰서'일 뿐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행동은 어디까지나 '명의'들의 영역이다. 만약 그 명의가 집도하는 수술이 국가와 개인의 건강을 해칠지라도, 아로운은 '진정한 인간'의 길을 고민하며 자신이 활약할 때를 '10년, 20년, 30년이라도 견디며 기다릴' 것이다(『아로운 2 현해탄은 말이 없다』 329면).

4. 나오며

이 논문은 한운사의 '아로운 삼부작', 『현해탄은 알고 있다』·『현해탄은 말이 없다』(1961)·『승자와 패자』(1963-1964)를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뚜르게네프의 『루진』 등과 비교하여, '아로운'의 '인간 추구'와 고독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과 '아로운 삼부작'은 모두 전쟁을 추상화하고 있고, 두 작품에서 강조하는 휴머니즘은 군대 안에서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 등 체제 안에서의 성실한 태도에 한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구조적 사유와 비판을 결여하고 있다. '모럴로

37) 「내 필생의 작업 여기에 걸다 2」, 『동아일보』, 1967.1.12.

저항'한다는 가지와 아로운의 휴머니즘은 태평양전쟁을 전쟁 일반으로 추상화시키고, 체제 안에서의 성실을 추구한다. 아로운(阿魯雲)의 이름 중 두 글자(阿, 魯)가 루쉰과 관련이 있으나, 실제 작품의 주제나 아로운의 인물 형성에서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뚜르게네프의 루진이다. 루진과 아로운은 기반이 없이 떠돌며, 행동보다는 이상과 관념을 추구하는 '구름(雲)'과 같은 인물들이다. 하지만 루진은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방랑을 한 반면, 아로운에게는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군부대를 떠나지 못한다. 아로운은 군부대 안에서 외로워야 했고, 이때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텍스트에서 '외로움'은 민족과 국가 관념을 떠나 전쟁에 비판적인 '진정한 인간' 사이의 연대 기반이 된다. 둘째, '외로움'은 아로운의 '모랄을 통한 저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배경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로운의 '외로움'은 구체적인 이념과 행동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1960년대 당시 정권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승인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전쟁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추상화된 전쟁에 '모랄'로 저항하는 인간들의 연대, 체제를 넘어서는 사유와 행동을 하지 않고 '진정한 인간'의 길을 걷기 위해 모순과 폭력을 인내하는 인간. 작가는 일제 강점기를 소화하기 위해 '아로운 삼부작'을 창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소화'가 식민지배가 야기한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상호이해라고 한다면, 아로운이 보여주는 인식과 태도는 참다운 식민지 지배 청산과 거리가 멀다. 한운사는 전쟁 속에서 진정한 인간을 그리려했다는 점에서 고미카와 준페이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조선 사람에게 배상할 짓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그의 언급은 그 동질감이 과거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이해에 기반해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한운사는 1985년판 서문에서 "일본 군국주의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지만, 군국주의가 남긴 폐해는 오늘날까지 한일관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운사의 '아로운 삼부작'은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지배 문제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계일보』
한운사, 『아로운 1-3』, 정음사, 1985.
_____, 『구름의 역사』, 한길사, 2006.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 1-6』, 도서출판 잇북, 2013.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 이항재 옮김, 『루진』, 열린책들, 2011.

김예림, 「불/안전국가의 문화정치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장—1960년대 영화와 현해탄 서사 재고—」, 『현대문학의 연구』 4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563-608면.
_____, 「치안, 범법, 탈주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전후(前後)—학병로망으로서의 『청춘극장』과 『아로운』—」, 『대중서사연구』 24, 대중서사학회, 2010, 43-77면.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 출판부, 2007.
김재철・구보상, 「고독에 관한 니체의 성찰」, 『철학연구』 142, 대한철학회, 2017, 51-74면.
김진규,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자기소외의 극복 모색—행동과 주체 정립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7.
손혜숙, 「학병의 글쓰기에 나타난 내면의식 연구」, 『어문논집』 75, 중앙어문학회, 2018, 227-258면.
오세정, 「앙드레 말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실존의식과 존재의미」, 『비교문화연구』 47,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017, 191-216면.
이경숙, 「한운사의 '아로운(阿魯雲) 3부작' 연구—이데올로기적 중층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381-406면.
이행선・양아람,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 기억, 재난・휴머니즘과 전쟁책임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 『기억과 전망』 3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42-94면.
이화진, 「'65년 체제'의 시각 정치와 〈총독의 딸〉」,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한국근대문학회, 2017, 277-306면.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국가적 서사'의 구성과 균열」,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20.
함충범, 「1960년대 한국영화 속 일본 재현의 시대적 배경 및 문화적 지형 연구=〈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2014, 201-234면.

林 岗, 「新思潮與"抉心自食"一重讀《墓碣文》」, 『新地文學』 34, 新地文化藝術有限公司, 2015, 102-110면.

Chances, Ellen B., *Conformity's Children: An Approach to the Superfluous Man in Russian Literature*, Slavica Publishers, 1978.

【Abstract】

The Meaning of "Human Pursuit" and "Loneliness" in the Trilogy of Ah Ro-wo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Komikawa Junpei's *The Human condition* and Turgenev's *Rudin* *

KIM, JINGYU**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meaning of "human pursuit" and "loneliness" in the Trilogy of Ah Ro-woon by comparing with Komikawa Junpei's *The Human Condition* and Turgenev's *Rudin*. Both Komikawa Junpei's *The Human Condition* and Trilogy of Ah Ro-woon abstract war, and the humanism emphasized in both works is limited to sincere attitudes within the system, such as resisting injustice in the military. In this respect, the humanism in both works lacks structural thinking and criticism of Japanese imperialism. The humanism of the Kaji and Ah Ro-woon abstracts the Pacific War as a war in general and relentlessly emphasizes sincerity within the system. While two of the characters in Ah Ro-woon's name (阿, 魯) are related to Lu Xun, it is Turgenev's *Rudin* that actual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veying the work's themes and shaping Ah Ro-woon's character. Rudin and Ah Ro-woon are like "clouds," drifting without a base, pursuing ideals and ideas rather than action. But Rudin wandered because he sought fundamental reforms, while Ah Ro-woon had no blueprint for reform and was unable to leave the military. Ah Ro-woon had to be lonely in the army, and that can mean three things. First, in the text, "loneliness" serves as a basis for solidarity among "true men" who are critical of the war, regardless of ethnicity and nationhood. Second, "loneliness" serves as a backdrop for Ah Ro-woon's "resistance through morals," showing that he has the qualities of a future leader of Korea. Finally, Ah Ro-woon's "loneliness" authorizes the regime's leadership of the 1960s by not offering specific ideologies and actions. The Trilogy of Ah Ro-woon serves as an important touchstone for thinking about the still unresolved issue of colonization.

Keywords: André Malraux, Komikawa Junpei, Lu Xun, Surplus Human, Loneliness, Sincerity, Humanism,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접수일: 2023.03.31.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3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8046695).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achon Univ.